

연구 노트

## 농산물 국제 교역과 권역별 유형

이 명근\* 최 세균\*

1. 서론
2. 국제 농산물 교역 현황
3. APEC의 권역별 교역
4. 맺음말

### 1. 서론

일반적으로 상품의 국제 교역은 한계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가 높은 국가로 수출한다는 '비교우위의 법칙'에 의해 설명되지만 농산물은 상대적인 한계생산비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절대적인 개념에 입각한 '절대우위의 법칙'에 의해 더욱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 농산물의 교역은 공산품에 비해 생산 요소의 부존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농산물은 토지라는 결정적인 농업 생산요소가 풍부한 국가에서 그렇지 못한 국가로 수출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의 국제 교역은 세계 전체의 작황과

정치·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위축되기도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 교역은 자연 조건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1920년대 제1차 세계대전과 1930년대의 대공황에 따른 유럽과 미국의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 개입으로 인하여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국제 곡물 재고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는 미국의 금 태환 금지 조치로 인해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석유 가격 폭등에 이은 농산물 흉작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식량 안보와 자급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농업 부문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 따라 각국의 농업 부문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1980년대의 농업 생산과잉을 유발하여 국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곡물 수출국들의 재고가 누적되었으며 미국과 EC를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보조금 경

\* 부연구위원

표 1 세계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백만 톤

연도	밀	쌀	사료곡물	옥수수	대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1970	56.5	8.5	54.3	32.1	12.6	2.9	1.6	0.3
1980	96.9	13.1	118.7	84.9	24.5	4.5	2.8	1.2
1990	117.2	12.6	101.9	64.5	24.2	7.3	4.6	2.3
1995	112.3	18.2	106.2	77.1	30.9	7.0	5.4	4.9

주: 육류는 1996년 기준임.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1997)

쟁을 야기하였다. 이는 농업 부문을 포함하는 새로운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1990년대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국제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가 한층 진전되었다. 그러나 1995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과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의 흉작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곡물 재고량이 감소하여 농산물 시장의 불안정 현상이 나타났다. 그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식량 수입국들은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APEC 지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세계 전체 교역 가운데 APEC 회원국의 교역 비중은 지난 2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45%에 달하였으며 농산물 교역에서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5%에 이르고 있다<sup>1</sup>. 특히

농산물 교역의 90% 정도를 APEC 국가들과의 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역내 회원국들의 농산물 교역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올바른 안목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 농산물 교역의 현황을 고찰하여 그 특성을 도출하고 APEC의 주요 품목별 교역 현황과 권역별 교역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 나라의 농산물 교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 2. 국제 농산물 교역 현황

세계 전체의 교역액은 1995년 현재 10조 달러로 1970년에 비해 17배 성장하였으며 농산물 교역도 꾸준히 성장하여 같은 기간에 8870억 달러로 8배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농산물 교역의 비중은 18.8%에서 8.8%로 크게 감소하였다.

곡물의 세계 전체 수출량은 지난 25년간 두 배로 증가하였다. 곡물 수출량은 1억 2000만 톤에서 2억 4000만 톤으로 증가하였지만 생산량에 대한 수출량의 비율은 11.0%에서 14.1%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생산량 증가분

<sup>1</sup> APEC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를 의미하며 1997년 10월 현재 회원국은 동북아시아의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대만과 홍콩, 동남아시아의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일랜드, 오세아니아의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미주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의 모두 18개 국가임.

표 2 APEC의 교역 비중

단위: 10억 달러, %

구 분	세계 교역			APEC 교역			APEC의 비중	
	전체(A)	농산물(B)	B/A	전체(C)	농산물(D)	D/C	C/A	D/B
1970	574	108	18.8	186	32	17.2	32.2	29.5
1975	1,590	260	16.3	499	80	16.0	31.4	30.8
1980	4,053	488	12.0	1,168	153	13.1	28.8	31.3
1985	3,900	443	11.4	1,525	138	9.0	39.1	31.0
1990	7,103	680	9.6	2,768	212	7.7	39.0	31.2
1995	10,088	887	8.8	4,531	307	6.8	44.9	34.6

자료: FAO(1996)

6억 톤 가운데 5분의 1만이 수출된 것이다.

육류는 수출량이 482만 톤에서 1682만 톤으로 2.5배 증가하여 곡물류의 교역량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육류 역시 생산량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7%에서 10.2%로 증가하였을 뿐이다. 생산량 증가분의 약 8분의 1만이 수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산량 증가의 대부분이 국내 소비에 사용된 것은 전통적으로 농산물이 수출보다는 국내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운송 수단이 발달하고 각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세계의 농산물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한편 APEC은 세계 전체의 인구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경제성장률이 높고 교역 규모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역동적인 지역이다. 이 지역의 교역 규모는 1970년 1860억 달러에서 1995년 4조 5310억 달러로 24배 증가하여 세계 전체의 교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APEC의 농산물 교역도 같은 기간에 320억 달러에서 310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APEC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1980년

대 초반 2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보였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최근에는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역내 아시아 신흥 공업국들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입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다른 지역에 대한 농산물 순수출 지역으로서의 역할이 차츰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여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농산물 수입국으로 전환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가 촉진되어 업종별 전문화가 이루어질 경우 역내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으로 양극화될 것이다. 그에 따라 회원국들의 해외 농산물 의존도는 증가하고 APEC이 전체적으로 농산물의 순수입 지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세계 농산물 시장의 수급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 2.1. 밀의 교역 현황

세계 전체의 밀 수출량은 1995년 1억 1200만 톤으로 1970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에 대한 수출량의 비율은 18.2%에서 21.0%로 증가하여 곡물류 가운데 가장 높았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표 3 밀 수출 현황

단위: 백만 톤

연도	세계	APEC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EU
1970	56.5	41.4	20.2	11.8	1.0	9.1	6.3
1980	96.9	67.4	41.2	16.3	3.8	9.6	22.5
1990	117.2	63.2	29.1	21.7	5.6	11.8	35.7
1995	112.3	67.2	35.4	17.9	4.3	13.0	30.3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1997)

표 4 밀 수입 현황

단위: 백만톤

연도	세계	APEC	EU	이란	러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이집트	일본
1970	55.8	12.7	14.7	0.5	0	0.5	3.7	2.8	4.8
1980	96.3	28.2	11.9	1.9	0	1.5	13.8	5.4	5.8
1990	113.1	27.6	15.4	4.0	10.8	2.0	9.4	5.7	5.6
1995	111.3	35.9	18.4	3.5	4.8	4.0	13.0	6.0	6.3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1997)

아르헨티나, EU 등이며 이들 5개국이 세계 전체 수출의 90%를 차지하였다. 특히 미국은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1970년대 중반 45%에 이르렀으나 EC의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1995년 현재 32%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밀의 수입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쟁적 시장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최대의 수입국은 EU(12개국)로서 1995년 수입량은 1840만 톤이며 중국은 1300만 톤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7개 수입국들이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 수준에 불과하다. 국제 밀 시장은 브라질과 중동 국가들 및 중국과 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수입량이 유동적인 탓에 불안정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은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량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APEC의 밀 수출량은 1995년 6700만 톤이

있으며 수입량은 3600만 톤으로 역외 순 수출량은 3100만 톤이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밀 수출량 증가로 세계 전체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의 73.3%보다 낮은 60%로 하락하였다.

## 2.2. 쌀 교역 현황

쌀의 세계 전체 수출량은 1995년 1800만 톤이며 생산량에 대한 수출량의 비율은 4.9%로 주요 곡물류 가운데 가장 낮다. 주요 수출국은 태국, 베트남, 미얀마, 파키스탄, 인도 등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며 상위 9개 수출국의 시장점유율은 90%를 넘는다. 태국은 최대의 수출국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1995년 30.2%였다. 국제 쌀 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인도와 베트남이 1970년대 수입국에서 1990년대에는 대규모 수출국으로 전환한 반면 EU와 중국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된 점이다.

표 5 쌀 수출 현황

단위: 백만톤

연도	세계	APEC	미국	태국	베트남	인디아	파키스탄	호주	EU
1970	8.5	5.5	1.5	1.6	0	0	0.2	0.2	0.4
1980	13.1	8.4	3.0	3.0	0	0.9	1.2	0.5	0.8
1990	12.6	7.6	2.3	4.0	1.1	0.5	1.3	0.5	1.1
1995	18.2	9.3	2.6	5.5	2.0	2.5	1.4	0.6	0.9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1997)

표 6 쌀 수입 현황

단위: 백만톤

연도	세계	APEC	브라질	중국	이란	인도네시아	EU
1970	7.7	2.7	0	0	0.1	0.5	0.6
1980	12.1	4.1	0	0.2	0.6	0.5	1.1
1990	11.4	2.3	1.0	0.1	0.8	0.2	1.3
1995	18.2	6.2	1.3	0.8	0.8	1.5	1.5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1997)

쌀의 수입은 세계 각지의 많은 나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필리핀, EU, 중동 국가들이 각각 50만 톤 이상을 수입하였으나 이들 6개국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국제 쌀 시장은 가격이 불안정하고 교역 규모가 작은 협소한 시장이며 수급의 가격탄력성도 낮다는 특징이 있다. 1980년대 국제 가격의 불안정성을 변이계수로 측정한 결과 밀이 12.5%인데 비해 쌀은 15.8%로 높게 나타났다(최세균 외, 1993). 세계 쌀 소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쌀은 주식으로 소비되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고 논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토지에서 생산될 뿐만 아니라 고온 다습한 생산 환경에 적합한 쌀의 대체 작목이 드물어 공급의 탄력성 또한 낮기 때문이다. 또한 쌀은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이 낮고 교역되는 쌀의 종

류도 장립종, 단립종, 찰쌀, 방향미 등으로 다양하여 시장이 협소하고 수급의 불안정성이 높다.

APEC의 수출량은 1995년 930만 톤이며 수입량도 620만 톤으로 증가하여 약 300만 톤을 역외로 수출하였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수출량 증가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1970년 64.7%에서 51.1%로 하락하였다.

### 2.3. 사료 곡물 교역 현황

사료 곡물은 일반적으로 밀과 쌀을 제외한 곡물을 말한다<sup>2</sup>. 사료 곡물의 수출량은 1995년 현재 1억 600만 톤으로 생산량에 대한 비

<sup>2</sup> 사료 곡물(feed grains)은 주로 옥수수(corn), 보리(barley), 수수(grain sorghum)를 의미하며 국제적으로는 조곡(coarse grains)이라고도 부르지만 통상 조곡은 기장(millet), 호밀(rye)과 귀리(oat)를 합한 여섯 가지 곡물을 일컫는다. The Economics of World Grain Trade (Grennes, T. et al.) 제1장의 논의 내용 참조.

표 7 사료 곡물 수출 현황

단위: 백만톤

연도	세계	APEC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EU
1970	54.3	28.4	18.6	4.3	9.1	2.9	9.6
1980	118.7	80.3	70.2	4.8	14.4	2.6	15.9
1990	101.9	68.4	51.5	5.5	5.6	2.9	22.4
1995	106.2	72.8	63.3	4.1	5.7	4.1	19.6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1997)

율은 13.6%였다. 사료 곡물의 교역량이 급성장한 것은 소득 향상에 따라 육류 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국제 사료 곡물 시장은 독·과점적 성격이 강한 시장이며 토지 자원이 풍부한 선진국들이 주요 수출국이다.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EU의 4대 수출국은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전체의 60% 정도를 수출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미국의 독점적 지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개발도상국들의 사료 곡물 생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 증가로 인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과거 사료 곡물의 수출국이었던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수입국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다. 1995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량은 1970년에 비해 절반 수준인 700만 톤으로 감소한 반면 수입량은 같은 기간에 400만 톤에서 3400만 톤으

로 급증하였다.

사료 곡물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 한국, 대만으로 이들 3개국이 세계 전체 수입량의 43%에 해당하는 4300만 톤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일본의 사료 곡물 수입량은 2000만 톤 수준으로 안정된 반면 한국과 대만의 수입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만은 최대의 축산업인 양돈 산업이 최근 크게 위축되어 사료 곡물의 수입도 감소할 전망이다.

사료 곡물의 주종을 이루는 옥수수는 1995년 수출량이 7700만 톤으로 증가하여 생산량의 15.3%가 교역되고 있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은 세계 옥수수 수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 한국, 대만, 멕시코의 4대 수입국은 시장 점유율이 50%에 불과하였다.

APEC의 사료 곡물 수출시장 점유율은 52.3%에서 68.5%로 높아졌으나 역외 순수

표 8 사료 곡물 수입 현황

단위: 백만톤

연도	세계	APEC	멕시코	대만	일본	한국	EU
1970	50.0	13.3	0.2	0.9	10.5	0.3	28.9
1980	110.4	37.1	7.1	3.7	18.9	2.4	32.4
1990	97.2	43.6	5.1	5.6	21.9	5.6	15.4
1995	99.9	56.7	6.3	6.3	26.9	10.1	17.7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1997)

표 9 옥수수 수출 현황

단위: 백만톤

연도	세계	APEC	미국	아르헨티나	EU
1970	32.2	15.3	12.9	6.4	4.9
1980	84.9	64.2	60.7	9.1	4.6
1990	64.5	52.1	43.8	4.0	6.2
1995	77.1	58.8	57.2	5.3	7.1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1997)

표 10 옥수수 수입 현황

단위: 백만톤

연도	세계	APEC	대만	일본	한국	멕시코	EU
1970	28.4	7.3	0.6	5.2	0.3	0.1	18.0
1980	79.1	13.6	2.7	14.0	2.4	3.8	25.4
1990	61.4	26.1	5.3	16.4	5.6	1.9	8.7
1995	70.4	44.4	6.0	16.3	9.0	4.3	9.7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1997)

출량은 1600만 톤 수준으로 안정되었다. 옥수수 수출시장 점유율 역시 76.3%로 높아졌으며 역외 수출량도 140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 2.4. 대두 교역 현황

대두는 생산량 대비 교역량의 비율이 높으며 농산물 가운데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품목이다. 1995년도 세계 전체의 대두 수출량은 생산량의 25.1%인 3100만 톤이었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1995년 시장 점유율은 72.7%에 달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포함한 3대 수출국의 시장 점유율은 94%나 되었다.

대두의 주요 수입국은 EU, 일본, 멕시코, 한국, 대만 등이며 이들의 1995년도 수입 규모는 전체 수입량의 80% 가까운 2550만 톤이었다. 대두의 수입은 다른 품목에 비해 대체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PEC의 대두 수출량은 1995년 2340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나 세계 수출 시장의 점유율은 100% 가까운 수준에서 75.7%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다른 지역의 수출량이 증가하였

표 11 대두 수출 현황

단위: 백만톤

연도	세계	APEC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EU
1970	12.6	12.6	11.8	0	0.2	0.0
1980	24.5	20.6	19.7	2.2	1.5	0.2
1990	24.2	17.8	15.2	4.1	1.7	0.5
1995	30.9	23.4	22.5	2.6	3.1	0.3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1997)

표 12 대두 수입 현황

단위: 백만톤

연도	세계	APEC	멕시코	브라질	일본	한국	대만	EU
1970	12.7	4.4	0.1	0	3.2	0.1	0.5	7.3
1980	26.2	8.8	1.4	0.9	4.2	0.5	1.1	13.3
1990	26.1	10.4	1.4	0.4	4.4	0.9	2.2	12.9
1995	32.2	13.7	2.2	1.0	4.8	1.4	2.6	14.5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1997)

기 때문이다. 역외 순 수출량은 1000만 톤으로 증가하여 여전히 세계 최대의 대두 수출 지역으로 남아 있다.

## 2.5. 쇠고기 교역 현황

쇠고기는 육류 가운데 교역량이 가장 많고 생산량 가운데 수출되는 비율도 가장 높은 품목이다. 쇠고기의 세계 전체 수출량은 1996년 700만 톤이었으며 생산량에 대한 비율은 14.9%였다. 주요 수출국은 EU,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이들 5개국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1996년에 78.2%로 나타났다. 국별로는 EU 37.9%, 호주 15.2%, 미국 13.7%였다. 그러나 EU와 미국, 캐나다는 부위와 가격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동시에 수출도 하는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수출량에서 수입량을 뺀 순 수출량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가장 많았다. EU의 쇠고기 수출은 199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1986-96 기간에 24만 톤에서 96만 톤으로 4배 증가하여 향후

표 13 쇠고기 수출현황

단위: 백만톤

연도	세계	APEC	EU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1970	2.9	0.9	0.7	0	0.1	0.5	0.3
1980	4.5	1.4	1.8	0.1	0.1	0.9	0.4
1990	7.3	2.2	2.6	0.5	0.1	1.1	0.4
1996	7.0	2.9	2.7	1.0	0.2	1.1	0.6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1997)

표 14 쇠고기 수입 현황

단위: 백만톤

연도	세계	APEC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EU	브라질	러시아
1970	2.7	1.0	0.8	0.1	0	0	1.3	0	0
1980	3.9	1.3	1.0	0.1	0.2	0	1.6	0.1	0
1990	6.1	2.1	1.1	0.2	0.5	0.1	1.9	0.3	1.1
1996	5.7	2.7	0.9	0.2	1.0	0.2	2.1	0.1	0.4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1997)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은 EU, 일본, 미국, 러시아, 한국 및 캐나다 등이지만 EU와 미국, 캐나다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순 수출국이다. 따라서 순 수입량은 1996년 97만 톤을 기록한 일본이 가장 많았다. 이들 6개 수입국의 수입량은 전체의 85.5%에 이르고 있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수입량이 1990년대에 빠른 증가를 보였다.

APEC의 1996년 쇠고기 수출은 290만 톤, 수입은 270만 톤으로 약 20만 톤의 순 수출을 나타냈다. 그에 따라 시장점유율도 40%로 1970년에 비해 높아졌다.

**2.6. 돼지고기 교역 현황**

돼지고기는 수출량이 정체되어 있고 생산량에 대한 수출량의 비율도 낮다. 또한 쇠고

기에 비해 품질이나 부위별 기호의 차이가 크지 않아 '산업내 무역'도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돼지고기의 전체 수출량은 1996년 540만 톤으로 생산량의 7.2%에 불과하였다.

돼지고기의 주요 수출국은 EU, 미국, 캐나다, 대만, 중국 등이며 이들 5개국의 시장점유율은 96.0%에 달하였다. 특히 EU는 1996년 약 400만 톤을 수출하여 73.7%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돼지고기 수출은 불안정하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국내 생산을 감축하고 있으며 1997년에 발생한 돼지 구제역(FMD)으로 인해 생산이 거의 중단되었다. 따라서 세계 돼지고기 시장은 EU와 미국이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대만이 차지하고 있던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등 수출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표 15 돼지고기 수출 현황

단위: 백만톤

연도	세계	APEC	미국	캐나다	중국	EU	대만
1970	1.6	0.1	0	0	0	1.2	0
1980	2.8	0.5	0.1	0.2	0.2	2.1	0
1990	4.6	0.9	0.1	0.3	0.2	3.1	0.2
1996	5.4	1.2	0.4	0.3	0.2	4.0	0.3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1997)

표 16 돼지고기 수입 현황

단위: 백만톤

연도	세계	APEC	미국	러시아	홍콩	일본	EU
1970	1.6	0.3	0.2	0	0	0	1.2
1980	2.5	0.6	0.2	0	0.2	0.2	1.7
1990	4.3	1.0	0.4	0.4	0.2	0.5	2.4
1996	4.8	1.5	0.3	0.3	0.2	0.8	2.9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1997)

돼지고기의 주요 수입국은 EU, 일본, 러시아, 미국, 홍콩 등이며 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4.5%에 달한다. 그러나 미국과 EU는 수출량이 수입량을 초과하는 순 수출국이므로 돼지고기의 순 수입량은 일본이 가장 많고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APEC의 돼지고기는 수출량은 1996년 124만 톤이고 수입량은 152만 톤에 달하여 28만 톤의 순 수입량을 나타냈다. 세계 시장점유율이 23%로 다른 품목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2.7. 가금육 교역 현황

가금육의 대부분은 닭고기이며 오리고기와 칠면조고기 등이 포함된다. 가금육은 콜레스테롤과 지방의 함유량이 낮아 소득 증가에 따라 붉은 살코기(red meat) 대신 소비가 크게 증가하여 육류 가운데 생산과 교역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품목이다.

가금육의 수출은 1970-1996 기간에 14배나

증가하여 쇠고기(2.4배)와 돼지고기(3.5배)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생산량에 대한 비율도 2.8%에서 10.3%로 높아졌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 EU, 중국, 홍콩, 브라질, 태국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1996년 97.2%에 달하였으며 최대의 수출국인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38%로 나타났다.

주요 수입국은 EU, 홍콩, 일본,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이며 이들 6개국의 수입량은 세계 전체의 90%에 달한다. 수입량 자체는 EU가 많지만 순 수입량은 일본이 가장 많았다. 가금육의 교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아랍 국가들과 러시아, 멕시코 등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PEC의 닭고기 교역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은 1996년 300만 톤이고 수입량도 180만 톤 정도로 늘어 순 수출량이 120만 톤에 이르렀으며 수출시장 점유율도 6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표 17 닭고기 수출 현황

단위: 백만톤

연도	세계	APEC	미국	EU	브라질	중국	홍콩	태국
1970	0.3	0.1	0	0.3	0	0	0	60
1980	1.2	0.3	0.3	0.6	0.2	0	0	0
1990	2.3	0.8	0.5	0.9	0.3	0.1	0.1	0.1
1996	4.9	3.0	1.8	1.3	0.5	0.5	0.5	0.2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1997)

표 18 닭고기 수입 현황

단위: 백만톤

연도	세계	APEC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홍콩	일본	EU
1970	0.3	0	0	0	0	0	0	0.2
1980	0.8	0.2	0	0	0	0.1	0.1	0.3
1990	1.9	0.7	0.3	0.2	0.1	0.2	0.3	0.6
1996	3.6	1.8	0.5	0.3	0.4	0.7	0.5	0.9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1997)

### 3. APEC의 권역별 교역

#### 3.1. APEC의 권역 구분과 농산물 교역 유형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제 농산물 교역에서 APEC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밀 60%, 사료 곡물 69%, 그리고 옥수수과 대두가 각각 76%이고 육류 수출에서도 쇠고기 40%, 돼지고기 23%, 가금육 60%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APEC은 단일 국가나 EU와 같은 동질적 협력체가 아니라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및 태국과 같은 수출국은 물론 세계 최대의 수입국 일본과 급성장 시장인 한국, 대만, 홍콩 및 잠재적 시장인 동시에 수출국인 중국을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의 협력체로서 회원국간 농산물 교역이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APEC의 농산물 교역 유형을 정확히 살펴 보기 위해서는 18개 회원국들의 교역 현황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서 어떠한 함축성을 찾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회원국들을 지리적 인접성과 농산물 교역 흐름에 따라 동북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아세안(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및 미주(캐나다, 미국, 멕시코, 칠레)의 4개 권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4개 권역은 일정한 공통점을 갖고 역내 다른 권역과 교역을 하기 때문에 역내 농산물 교역의 특성과 유형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농산물 교역의 APEC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권역별 농산물 교역유형(patterns of trade)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 나라의 농산물 수출입 정책에 대한 함축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3.1.1.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 지역으로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큰 곳

표 19 APEC의 권역별 농산물 교역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동 북 아			미 주			아 세 안			오 세 아 니 아		
	수 입	수 출	무역 수지	수 입	수 출	무역 수지	수 입	수 출	무역 수지	수 입	수 출	무역 수지
1970	5,253	1,229	-4,024	7,950	10,436	2,486	732	2,174	1,442	389	1,300	911
1975	14,247	961	-13,286	14,394	27,756	13,362	2,841	5,836	2,995	958	7,071	6,113
1980	24,273	2,298	-21,975	26,743	52,118	25,375	6,239	13,636	7,397	1,494	12,892	11,398
1985	28,628	8,973	-19,295	28,361	39,956	11,595	6,084	12,395	6,311	1,792	11,692	9,900
1990	51,734	16,125	-35,609	39,558	58,530	18,972	10,402	16,344	5,942	2,574	16,750	14,176
1994	67,384	22,904	-44,480	47,486	69,406	21,920	15,687	23,990	8,303	3,077	17,689	14,612

자료: FAO Trade Year Book

<http://apps.fao.org/lim500/nph-wrap.pl?Trade>.

이다. 1994년 현재 동북아시아의 인구는 14억 3150만 명으로 APEC 전체 인구의 64.7%를 차지하고 있으나 GDP는 6조 4220억 달러로 역내 GDP의 40%에 불과하다. 따라서 1인당 GDP는 4486 달러로 4개 권역 가운데 아세안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동북아시아는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식량의 자급자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이 지역은 세계에서 농산물 수입이 가장 많고 농산물 무역수지가 1994년 현재 약 450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은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타결로 시장 개방 규모가 가장 크고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로 농업생산 기반이 위축되어 앞으로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하고 농업 부문의 무역수지 적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APEC에서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최대 시장이다. 이 지역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최대의 소비 지역이지만 대부분의 소비량을 각국이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교역량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지역은 역내 자급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수입 규모가 커서 APEC 전체 수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민 소득이 높고 인구도 비교적 많아 구매력을 갖춘 대규모 국내시장을 보유한 일본은 거의 모든 농산물의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농산물 수입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12억 인구나 급성장하는 경제로 인해 국내 소비가 급속히 증가하여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농산물 수입 시장으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 3.1.2. 아세안

아세안의 국가들은 인구에 비해 풍부한 토지 자원을 보유한 곳은 아니나 열대성 기후로 인하여 연중 농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지역이다. 아세안 6개국의 인구는 1994년 현재 APEC 인구의 16%인 3억 5200만 명에 달하나 GDP는 4%도 안되는 6300억 달러로 1인당 GDP가 APEC 지역에서 가장 낮은 1792 달러에 불과하다. 농산물 교역 규모는 동북아시아의 43.9%, 미주의 33.9% 수준이다. 농산물 교역은 수출입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4년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는 1970년의 14억 4000만 달러의 5.7배에 달하는 8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의 농산물 교역은 수출 품목이 소수의 몇 개 품목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아세안의 농산물 교역은 수출이 쌀을 비롯한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고 수출국도 태국으로 대표되는 소수 국가라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에 수입은 쌀을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의 시장 규모가 작은 편이나 시장점유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 등이다. 이 지역은 동북아시아나 미주에 비해 시장 규모가 영세하지만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

고 인구 증가율이 높아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 3.1.3.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는 토지 자원에 비해 인구가 희소한 편으로 1994년 현재 인구는 APEC 전체 인구의 1.2%에 불과한 2530만 명이었으나 국민총생산액은 2.4%인 3300억 달러에 달하여 1인당 평균 소득이 1만 3000 달러나 되는 부유한 지역이다. 또한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산물 수출의 비중이 역내에서 가장 높고 농산물 교역 규모는 가장 작은 반면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미주 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 매우 적극적인 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오세아니아의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는 1970년 9억 달러에서 1994년 146억 달러로 16배나 증가하였다. 1994년의 농산물 수입은 31억 달러이고 수출은 177억 달러에 달하였다.

APEC의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 오세아니아 지역은 쇠고기의 최대 수출지역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주로 일본과 한국, 대만 등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며 '산업내 무역'의 일환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고급품인 미국산 쇠고기와 달리 호주와 뉴질랜드의 쇠고기는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가공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 3.1.4. 미 주

미주는 APEC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 공급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이다. 농산물 교역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며 거대한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 지역이기도 하다. 이 지역 4개국의 인구는 4억 명으로 동북아시아의 28%에 불과하지만 GDP는 동북아시아보다 30% 이상 많아 1인당 GDP가 2만 1400 달러로 APEC에서 가장 높다. 1994년 농산물 교역 규모는 1170억 달러이며 219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미주 지역의 농산물 수출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한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곡물 및 육류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PEC의 농산물 교역에서 미주 지역의 역할은 상당히 복잡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곡물과 육류 등 여러 가지 주요 농산물의 수출 지역으로서 역내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대한 농산물 공급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적지 않은 인구와 높은 소득 및 가장 개방된 시장으로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입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세계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농산물이 가격과 품질 등으로 경쟁하는 시장이라 할 수 있으며 같은 품목이라 할지라도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산업내 무역'에 의해 거의 완전 경쟁적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다.

## 3.2. 농산물 교역의 권역별 유형화

먼저 APEC의 권역간 농산물 교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유형은 수입에 있어서 동북아시아의 비중과 수출에 있어서 미주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인구와 소득 수준 같은 정태적 측면은 물론 경제성장률과 같은 동태적 측면에서도 소비시장으로서의 동북아시아와 경지면적과 생산성 등에서 가장 앞선 세계 최대의 생산 기지인 미주는 역내 농산물 교역 유형을 결정하는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두 권역은 APEC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농산물 교역에서도 각각 수입과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역내 농산물 교역의 규모와 방향을 좌우한다.

실제로 동북아시아의 수입 증대는 역내 다른 권역의 수출 증대로 직결되고 있어 동북아시아의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 확대에 따라 미주를 비롯한 다른 권역의 흑자 규모도 증대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옥수수를 비롯한 사료곡물과 밀 등 곡물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까지 거의 모든 농산물 교역의 상호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동북아시아 권역의 수입 시장 규모가 지난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잠재적인 시장 규모는 더욱 크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수입자유화 조치에 따라 미주 권역의 수출도 한층 증가하여 두 권역의 교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PEC 농산물 교역의 두번째 유형은 '산내 무역'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여러 품목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주 권역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공급지역이면서도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료곡물, 대두 및 쌀 등 거의 모든 곡물류에 이르기까지 APEC 전체 수입량의 10%가 넘는 물량을 수입하고 있다. 쇠고기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46%에 이른다. 그리하여 미주 권역은 최대의 공급 기지이면서도 동북아시아에 이어 역내 제2의 수입시장이다. 또한 전형적 수입 권역인 동북아시아의 수출이 1990년대 들어 오세아니아의 수출액보다 많고 아세안보다 약간 작은 규모에 이른다. 이는 동일한 품목일지라도 품질과 가격, 등급과 규격 등에 따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출국이 수입도 하고 반대로 수입국도 수출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국제 교역은 비교우위 또는 절대우위의 원리에 따라 어떤 품목이 한 국가에서 수출될 경우 교역상대국은 그 품목을 수입하고 다른 품목을 수출하는 유형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동일한 품목도 품질과 가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얼마든지 다른 품목처럼 취급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가격이 높은 국내산 쇠고기를 수출하는 대신 가격이 낮은 호주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형태의 교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APEC에서 농산물 교역의 세 번째 유형은 농산물 수출 시장에서 아세안과 오세아니아 권역이 미주 권역과 경쟁적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비록 수출 품목이 아세안은 쌀, 오세아니아는 쇠고기와 밀 등 소수의 특정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들 두 권역은 미주의 수출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면서 동북아시아의 방대한 시장을 일부 또는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APEC의 전 세계에 대한 농산물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시아의 농산물 수입 증가율이 미주와 오세아니아 등의 수출증가율보다 높

아 한때 200억 달러를 넘던 역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최근 들어 거의 소멸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동북아시아의 무역 적자액이 미주와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세안의 무역 흑자액을 합한 금액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는 역내 농산물 수출국들의 역외 지역에 대한 공급 여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4. 맺음말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농산물 교역에서도 APEC 회원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밀과 쌀 그리고 옥수수를 비롯한 사료 곡물과 대두 등 주요 곡물류는 물론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의 수출에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태국과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이 지역 국가들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농산물의 국제 교역은 제조업 등 비농업 부문의 교역과 비교할 때 첫째, 생산량에 비해 교역량의 비율이 낮다. 따라서 생산량이 조금만 변화해도 수출량은 크게 변화하여 시장의 수급 상황이 불안정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농산물의 교역량 비율이 낮은 것은 대부분의 농산물 특히 식품은 전통적으로 현지에서의 소비를 위해 생산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관 및 운송상의 어려움과 지역간의 식습관 차이, 그리고 국가별 보호주의적 농업 정책도 교역의 비중이 낮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농산물 수출은 극히 제한된 소수의 국가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수입은 경쟁적 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품목별 주요 수출국의 작황이 나쁘거나 또는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가격 담합과 수출 금지 등에 의해 시장의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밀은 상위 5개 수출국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반면 수입은 8개 수입국의 비중이 50%에 그치고 있다. 쌀도 8대 수출국들의 시장 점유율이 90% 수준이지만 10개 수입국의 비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옥수수는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75%, 상위 4개국의 시장 점유율은 93%를 넘었다. 가금육도 상위 6개 수출국의 시장 점유율이 97.2%에 달하고 있다.

셋째, 농산물 교역은 대체로 선진국들이 수출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수입하는 전형적인 남북 무역의 형태를 보인다. 특히 곡물과 육류의 경우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서방 선진국들이 수출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수입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31.6%에서 1995년에는 54.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농업 부문의 개방화 진전과 개도국의 공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에 따라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넷째, 가격의 단기적 급변과 같은 시장의 불안정성이다. 국제 농산물 시장의 수급 불안은 근본적으로 농업 생산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다. 농업 생산은 자연 조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기상 이변이나 자연 재해가 발생할 경우 생산량이 크게 감

소하여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에 비해 농업 기반 시설이 미비되어 자연 조건 의존도가 높아서 기상 상황에 따라 국내 생산량의 변화가 크고 수입 수요도 급변하게 되어 국제 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게 된다.

APEC의 역내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유형은 수입에 있어서 동북아시아 권역과 수출에 있어서 미주 권역을 연결하는 양대 축(軸)이라 할 수 있다. 인구나 소득은 물론 경제성장을 측면에서도 소비시장으로서의 동북아시아와 경지면적과 생산성 등에서 세계 최대의 공급 기지인 미주는 역내 농산물 교역 규모와 흐름을 결정하고 있다.

APEC 농산물 교역의 두 번째 유형은 '산업내 무역'에 의한 교역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광범위한 품목과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수입 권역인 동북아시아의 수출규모가 오세아니아보다 많고 최대의 수출 권역인 미주의 수입액이 동북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가격과 품질, 등급과 규격에 따라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산업내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비교우위에 따른 생산의 특화가 교역 유형을 결정하는 '산업간 무역'의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역내 농산물 교역의 또 다른 유형으로 아세안과 오세아니아 권역이 특정 품목의 수출 시장에서 미주 권역과 경쟁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쌀의 경우 아세안, 쇠고기와 밀의 경우 오세아니아는 동북아시아 권역의 수입 시장을 무대로 미주 권역과 경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APEC 국가들의 소득 및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역외 지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농산물 수입 증가율이 높아 역내 무역수지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1990년대 들어 동북아시아의 방대한 무역 적자 규모는 미주와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세안의 무역 흑자로 배분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APEC에 대한 식량의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EU나 남미 등 역외시장으로의 다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산업내 무역'의 추세에 따라 '틈새시장' 개척 등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경쟁적 관계에 있는 미주와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세안과의 적극적 통상 외교를 통하여 수입국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익을 향유하고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는 한편 막대한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충분히 활용하여 향후 통상 협상에서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어명근, 김동민. 1995. 「APEC과 농산물 무역」, 정책연구보고 P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최세균, 진춘근. 1997. 「아태지역 식품유통 및 수급동향과 변화요인 분석」, 용역보고 C97-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12. 「농축산물 시장개방의 파급영향 분석」.  
 최세균, 김동민, 임정빈, 이재욱. 1993. 「UR 이후 세계 곡물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 R27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정섭, 임송수. 1996. 「호주의 밀·쌀·쇠고기 산업」, 연구자료 D1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Brown, Lester R. and Hal Kane. 1994. *Full House: Reassessing the Earth's Population Carrying Capacity*, the World-watch Environmental Alert Series.
- Coyle, William T., 1996. "Trends in Food and Agriculture in the APEC Region," 23-44, *Toward a Pacific Rim Food System*, National Center for APEC and Washington State University, USA
- ERS Staff Paper, 1996. *Long Term Projections for International Agriculture to 2005*, Economic Research Service, Commercial Agriculture Division, Number 9612, USDA
- FAO, 1996. *Trade Yearbook*, (<http://apps.fao.org/lim500/nph-wrap.pl?Trade>)
- \_\_\_\_\_. 1995. *World Agriculture: Towards 2010*
- Grennes, T. et al., 1978. *The Economics of World Grain Trade*
- Mitchell, Donald O. and Merlinda D. Ingco. 1993. *The World Food Outlook*, World Bank
- National Center for APEC and Washington State University. April 1996. *Toward a Pacific Rim Food System*, Forum on U.S. Agriculture and Food Trade Policy in APEC.
- OECD, 1996. *The Agricultural Outlook, Trends and Issues to 2000*, Paris, France
- USDA, 1997.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Database*
- Yang, S. R. and D. B. Han, September 17-20. 1996. "Structural Changes in Agriculture and Implications to Food Security in Korea,"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Food Production and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Family Farms in an Open Market Situation', Seoul, Korea